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RBA 호주달러 상승 견제에도 네고물량에 하락

■ 전일 달러/원 환율은 연방은행 총재 세인트루이스가 양적완화 유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영향으로 전일종가 대비 0.9원 내린 1,062.0원에 출발하였다. 이날 호주중앙은행(RBA)은 호주달러가 ‘불편할 정도로 높다’는 의사를 밝히며 눈길을 끌었다. 이에 호주달러 약세가 나타났고 수입업체의 결제수요가 유입되면서 달러화는 1,063원대까지 레벨을 높였다.

■ 그러나 금주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더더지며 등락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 장 후반 수출업체의 네고물량이 꾸준히 유입되었고 달러화는 하락 압력을 받았다. 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061.1원에 저점을, 1,063.1원에 고점을 기록했고 결국 전일대비 1.7원 내린 1,061.2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1062.00

고가

1063.10

저가

1061.10

종가

1061.20

평균환율

1062.0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1077.72

고가

1081.20

저가

1074.79

종가

1076.64

금일 전망

美 고용지표 발표 관망 및 수출업체 네고 물량으로 1,060원 초반 등락 전망

■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7원 오른 1,062.9원에 출발하였다. 그러나 1,060원 중반에 근접할 때마다 대기중인 네고 물량이 출회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어 금일 달러화의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 8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10월 비농업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참여자들은 적극적인 거래를 제한하며 관망심리를 보이고 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수출업체의 네고물량으로 다소 무거운 흐름이 예상되지만, 당국의 개입 경계감과 저점 결제수요가 하단을 지지하며 1,060원대 초반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59.00 ~ 1067.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91.49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15원상승

■ 美 다우지수 : 15618.22, -20.9p(-0.1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3.055 억달러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